



셧다운을 막은 임시예산안 연장

임시예산안

만료 예정일은 1월 19일

현지시간 1월 19일은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1차 시한 만료일. 작년 11월 임시 예산안 통과 때 1월 19일(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2월 2일(국방부, 국무부 등 나머지) 시한을 나눠 임시 예산안 편성한 바 있음. 이번주 상원, 하원의 임시 예산안 연장을 위한 계속 결의안에 대한 표결 예정되어있었음. 통과시 두 마감 기한은 각각 3월 1일과 8일로 연장

예산안 만료 하루 전
연장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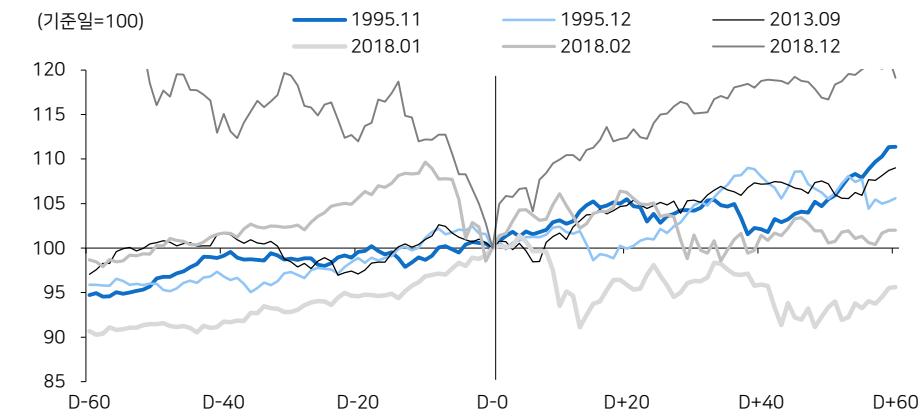
임시 예산안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연장 표결이 오후부터 시작되어 상원은 77:18, 하원은 314:108로 통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음. 연방정부 셧다운 없이 3월 1일까지 2024 회계연도 본 예산안 최종합의를 도출할 시간 확보

본 예산안 합의 기한은 3/1

문제는 본 예산안. 1월 7일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로 1조 6천억 달러 규모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발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번 합의를 지난 10년간 이룬 합의 중 공화당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라고 평가. 새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합의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멕시코 국경 등 안보 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민주당이 중시하는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처리가 늦어지는 중

다만 과거 사례에서 셧다운이 현실화 되더라도 주가 추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음. 그런데 어제 시장 반등은 오후부터 시작, 색깔은 초당적 사안인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하고 뒤이어 산업재를 중심으로 공화당 바스켓이 우위

그림1 1995년 이후 연방정부 셋다운 전후 주가 추이: 셋다운보다는 다른 이슈가 문제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